

본초학 시대의 약초원

김정화* · 조경진**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I. 서론

본 연구는 가까운 미래, 식물원의 용성을 앞에 두고 식물원의 태동에 대한 검토가 시대적 과제임을 인지하는 것에서 출발하며, 또한 태동 그 이면에서 식물원의 역사에 대한 도의시와 비판적 사고의 부재를 직시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함께 본 연구는 식물원의 발원에 대한 비판적·역사적 고찰을 시도하고자 하며, 그 일환으로 식물원의 기원으로 알려진 약초원을 찾는 데 목적을 둔다.

식물원의 기원은 르네상스 시대 파도바, 피렌체, 볼로냐 등지에 설립된 약초원으로 알려져 있다(Hunt, 2012). 아일랜드의 지리학자 놀라 존슨(Nuala Johnson)은 케임브리지, 더블린, 벨파스트의 식물원 탄생 과정을 의학에서 식물학으로 '학과(discipline)'의 이동에서 찾았고(Johnson, 2011: 4), 미국의 과학사학자 폴라 핀들렌(Paula Findlen) 역시 식물원의 등장을 의학에서 박물학이라는 교육 체계의 변화로 이해하였다(Findlen, 1994: 241-287). 즉, 서구의 식물원은 의학에서 박물학으로 식물 연구와 교육의 목적이 이동하는 근대 과학의 탄생 과정에 따라 약초원에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양에서 박물학이 의학에서 갈라져 나와 발전한 것처럼, 동아시아에서도 박물학의 뿌리는 본초학(本草學), 즉 약초 연구였다(山田慶兒, 1997: 28). 중국 명대 이시진(李時珍, 1518~1593)의 약물학서이자 자연에 대한 백과사전인 『본초강목(本草綱目, Compendium of Materia Medica)』이 그 징표이다(Needham, 1954: 147). 일본에서도 본초학은 에도시대 중기 이후 박물학으로 진화하였으며(이중희, 1996), 우리나라 식물을 정리한 최초의 식물도감 『조선식물향명집(朝鮮植物鄉名集)』의 참고 서적이 조선시대의 본초서 및 의서였다는 사실이 알려주듯 한국에서도 조선시대의 의약학과 현대 식물학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본초학이 융성하였던 시대로부터 약초원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연구 범위는 본초학이 융성하였던 때인 고려 말기에서부터 조선 초기에 이르는 13~15세기이다. 이때는 자생 약초에 대한 관심과 함께 '향약론(鄉藥論)'이 대두하였으며, 현존하는 가장 오랜 의학서적 『향약구급방(鄉藥救急方)』을 비롯한 여러 본초서가 저술되어 한국 의학사에서 주목받는 시기이다(김두중, 1966;

김호, 1999). 주지하다시피, 유럽 약초원의 탄생과 확산 배경에는 페다니우스 디오스코리데스(Pedanius Dioscorides)의 『약물지(Materia Medica)』로 대변되는 약초에 대한 의학 분야의 관심이 있었으며(Findlen, 1994: 248-261), 일본의 약초원 태동 역시 에도시대 본초학의 발전과 관련 정책에 힘입은 것이었다(이중희, 1996). 약초에 대한 관심 및 이론의 발달과 약초원의 불가분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와 같은 역사적 사례를 고려할 때, 여말선초의 향약을 중심으로 한 본초학의 융성은 약초원의 존재 가능성을 내포한다 하겠다.

우선 식물을 약용으로 인식하고, 탐구하는 학문인 본초학의 출현과 발전 과정을 살펴며, 특히 토산 약초에 대한 관심이 대두한 고려 말에 주목하고 그 배경을 확인한다. 이와 함께 약초 수집과 재배가 이루어진 흔적을 탐색하고, 이러한 현상의 의미를 논의한다. 다음으로 조선의 건국 당시 의료 체계 구축과 향약 연구가 국가 운영의 중요한 과제였다는 사실에 유의하여 향약 정책을 검토한다. 또한 향약의 확보, 증식, 개발을 위한 제도 속에서 약초원 운영의 흔적을 찾고, 그 위치, 규모, 운영 방식 등을 토대로 약초원의 실체를 그려본다.

II. 연구 내용 및 결과

1. 고대의 약초 탐구와 의료제도

예부터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식물이 질병 치료의 핵심으로 여겨졌으며, 식물 탐구가 본초학이라는 명칭으로 의학의 범주 내에 존재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고대의 본초학 전반과 의료제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삼국시대의 의료제도로부터 약초 채취와 관리, 그리고 약초 연구와 교육 체계를 짐작케 하는 기록을 발견하였다. 또한, 대민의료제도와 지방의료제도가 발달했던 고려시대(이경록, 2010)에는 약초 채취뿐 아니라, 공급까지 담당한 약점이라는 기구가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약초에 대한 관심의 크기와 약초 관리 체계의 발달은 약초원이 탄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약초원 탄생에 관한 징후가 본격적으로 엿보이는 시기는 본초학이 새로운 단계로 발전한 고려 후기이다. 이 시기에는 성리

학의 도입으로 인한 자연관의 변화, 즉 지역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향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김호, 1999: 143-146). 본초학의 관심 대상이 제한적으로 유통되던 당약과 달리 비교적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향약으로 이동하고, 이에 따라 향약의 분류와 약성 등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 이론이 발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향약을 구해 활용할 수 있는 밑바탕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승인(李崇仁, 1347~1392), 변계량(卞季良, 1369~1430), 이색(李穡, 1328~1396), 정도전(鄭道傳, 1342~1398), 이규보(李奎報, 1168~1241) 등 성리학 탐구에 앞장섰던 신진 사대부들 사이에서 약초를 구하고 약포(藥圃)를 일군 사례들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물론 약포는 규모나 체계 면에서 약초원으로 분류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식물원의 기원을 쫓는 지적 여정에서 주목해야 할 대상이다. 조선시대 약초원의 탄생은 예고하는 전조이기 때문이다.

2. 조선시대의 종약전

조선 왕조는 건국 초기부터 향약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다. 조선의 정치사상은 백성을 위해 어진 정치를 베푼다는 뜻을 지닌 '인정(仁政)'에 뿌리를 두고 있었는데, 인정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의료였고, 의료의 핵심에 본초학, 특히 향약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향약의 생태와 약성 연구 및 향약서 간행과 같은 이론 연구를 비롯해 향약의 지리 분포 조사, 수취와 생산 체계 구축 등의 정책이 실행되었다(안덕균, 1994; 이경록, 2010; 김성수, 2016).

이러한 움직임 속에는 종약전(種藥田) 혹은 줄여서 약전(藥田)이라는 명칭의 의료 시설 운영도 포함되어 있었다. 종약전의 소속, 운영 목적, 운영 규정 일부, 재배 약초 종류와 수, 설립 연대, 위치, 규모, 운영 구성원에 관한 사실을 알려주는 자료를 종합해보면 종약전은 토산 약초의 증식과 해외 약초의 토산화를 통해 약재를 확보하고 생산하는 국가 시설, 즉 약초원으로 판단된다.

III. 결론

조선시대의 종약전이 식물원의 역사에서 지니는 위상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쟁점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하나는 식물원의 본질인 과학 탐구 기능이다. 종약전이 내의원과 혜민서라는 중앙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내의원

이 질병 치료뿐 아니라, 의약 연구와 교육을 수행한 기관이었기에 이론적으로 종약전이 약초 연구와 교육의 장소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종약전이 본초 연구와 교육에 기여하였다는 기록은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약초원에서 식물원으로의 진화 여부이다. 그러나 본초학이 박물학으로 발전한 조선 후기에 종약전이 식물원으로 거듭났다고 해석할 수 있는 운영 목적이나 수집과 재배종의 변화, 혹은 박물학적 성과에 관한 근거 자료가 전하지 않는다. 따라서 종약전은 의약을 담당하던 기관의 재배지로서 기능한 약초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종약전을 식물원으로 진화한 약초원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약초원이 유럽에서는 16세기에, 그리고 일본에서는 18세기에 등장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15세기 초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종약전은 주목할 만하다. 다만, 종약전은 조선 후기까지는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을뿐더러, 지금까지 발견된 자료들만으로 그 실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종약전의 실체를 보다 정확히 보여주는 자료가 발굴되어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두중(1966)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2. 김성수(2016) 조선전기 의약정책의 수립과 전개양상(연세대학교 의학사연구소 편, "한국근대의학의 탄생과 국가"). 서울: 역사공간. pp. 88-138.
3. 김호(1999) 여말선초 '향약론'의 형성과 『향약집성방』. 진단학보 87: 131-149.
4. 안덕균(1994) 세종 시대의 보건의생. 재판.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5. 이경록(2010) 고려시대 의료의 형성과 발전. 서울: 해안.
6. 이종희(1996) 일본인의 자연관과 박물학의 발전. 미술자료 57: 167-199.
7. 山田慶兒(1997) 本草と夢と鍊金術と(본초와 꿈과 연금술). 東京: 朝日新聞社.
8. Findlen, P.(1994) Possessing Nature: Museums, Collecting, and Scientific Culture in Early Modern Ital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9. Hunt, J. D.(2012) The Botanical Garden, the Arboretum and the Cabinet of Curiosities. In A World of Gardens. London: Reaktion Books. pp. 130-145.
10. Johnson, N. C.(2011) Nature Displaced, Nature Displayed. London: New York: I. B. Tauris.
11. Needham, J.(1954) Science and Civilisation in China, Vol. 1. Cambridge [Eng.]: University Press.